

전력기기3사, 공급자 우위 환경 지속... 글로벌 성장 '청신호'

美 등 변압기 부족 현상 장기화
생산설비 추가 확충... 수익성 확대
“국내업체, 해외 수주 전망 긍정적”

미국을 중심으로 변압기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공급자 우위의 시장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수주 단가를 추가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내년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기기 3사(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의 외형 성장세가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들의 주문 사양이 향상되면서 수주 단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공급자 우위 사업 환경 속에서 마진율이 이전 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2026년까지도 수익성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도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사이클이 최소 2030년까지는 지속되며 전력기기 업체의 수익성 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효성중공업 미국 테네시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 전경.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스마트 공장 외경



LS일렉트릭 청주스마트공장.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대규모 전력망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저렴한 전력 공급에 대한 정부 정책이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AI·데이터센터나 미국 내 수급 불균형 등도 업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지목되며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 생산설비 추가 확충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당초 미국 시장에서 순위권 안에 들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던 중국산 전력기기들이 미·중 무역분쟁 본격화 이후 점유율을 잃은 점도 국내 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반덤핑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 바 있다. 트럼프 1기 임기 당시 반덤핑 관세가 60%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반덤핑 재심에서는 한국산 전력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변압기 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권 2기 때에도 과거의 높은 반덤핑 관세가 재현될 가능

성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아울러 유럽까지도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나며 전력기기 업체들은 장기공급 계약을 통해 선제적인 물량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주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인 미국, 중동에 이어 유럽에서도 변압기 부족 현상으로 인한 단가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세다.

효성중공업의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7조3000억원이다. 지난 11월 유럽 수주 실적만 1조원을 돌파했으며 신재생 발전 비율이 높은 북유럽 지역에서 초고압 및 대형 변압기 위주로 발주를

지속할 방침이다. HD현대일렉트릭 또한 북미와 유럽 등 주력 시장 외에도 중동 지역 수주가 늘어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가 7조1800억원에 달한다. LS일렉트릭도 북미 지역에서 견조한 전력기기 수요에 힘입어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 2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력기기 업체들의 생산 능력 증설 효과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변압기가 효율성과 내구성 측면에서 우수해 해외 수주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술·현장·글로벌’ 키워드 인사... 하이닉스, 안현 사장 승진

삼성, CES 초대장 발송 ‘AI for All’ 전략 공유

SK그룹 정기인사

임원 75명 신규선임... 조직개편 단행
AI·DT 등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 집중

SK그룹이 ‘기술·현장·글로벌’을 키워드로 2025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새 대통령의 임기를 맞이하는 북미의 복잡한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SK아메리카스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있었다.

SK그룹이 5일 오전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계열사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임원인사와 조직개편 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SK그룹 인사는 ‘기술 현장 글로벌’을 키워드로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임원 75명을 신규 선임했으며 이중 3분의 2는 사업, R&D, 생산 등 현장 및 기술 분야에 특화된 인물들이다. 신규 CEO 인사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 손현호 SK디스커버리 대표

단행한 계열사는 SK디스커버리, SK하이닉스이다.

각 계열사들은 이번 인사로 맞이한 조직변화를 통해 ▲기술·현장 출신 등 본원적 경쟁력 강화 ▲AI/DT(디지털 전환)에 역량 결집 ▲지정학 이슈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인물 발굴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 극복에 나설 예정이다.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사장에는 손현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부사장)이 선임됐다. 손사장은 경영전략 설계와 재무 전문성을 갖춘 인

재다. SK하이닉스는 안현 N-S 커미티 담당이 사장으로 승진해 개발총괄(CDO)를 맡는다. 현재 HB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통한 마켓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D램·낸드 기술력 또한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김필석 박사를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환경과학기술원장으로 영입했다.

SK온은 SK하이닉스의 인재들을 영입하며 계열사 전반의 체질변화를 꾀한다. SK온은 신창호 SK PM 부문장을 신설한 운영총괄 임원으로 선임했다. 또 피승호 SK실트론 제조·개발본부장을 제조총괄로 선임했다.

지난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출됨에 따라 섀미 복잡해진 북미 이슈를 위한 인재

영입도 있었다.

올 상반기 SK그룹의 북미 대외 업무 컨트롤타워로 신설된 SK아메리카스는 지정학 이슈에 빠른 대응을 위해 대관총괄에 폴 딜레이니 부사장을 선임했다. 폴 딜레이니 부사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 미 상원 재무위원회 국제무역고문 등을 역임하다 지난 7월 SK아메리카스에 합류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그룹 미주 GR(Government Relations)을 총괄하도록 역할을 확대하게 되었다.

SK그룹은 그룹 전반의 AI/DT 가속화를 위한 조직개편도 실시한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전략/Global위원회 산하에 있는 AI/DT TF를 확대 운영한다. 유영상 SK텔레콤 CEO가 맡고 있는 AI TF는 AI 추진단으로 확대하며, 윤풍영 SK㈜ C&C CEO가 맡고 있는 기존 DT TF와 별개로 DT 추진팀도 신설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전자가 5일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의 초대장을 보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CES 2025 개막 하루 전인 내년 1월 6일 오후 2시(현지 시간) 프레스 콘퍼런스를 실시하고,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가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경험과 혁신의 확장’ (AI for All: Everyday, Everywhere)이라는 주제로 삼성전자의 홈 AI 전략이 공개될 계획이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삼성전기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삼성전기의 ESG경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삼성전기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이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수원·세종·부산 등 국내 사업장과 중국 천진 사업장에서 자원순환율 99.5% 이상을 달성해 폐기물 매립 제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고, 금년에 중국 고신·베트남·필리핀 사업장도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해 국내외 모든 사업장이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삼성전기는 폐기물 매립 제로 최고 등급 달성을 위해, 사업장별 재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 확대하는 등 자원순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박현진 “밀리의서재, AI 기반 ‘독서 라이프 플랫폼’ 혁신”

(밀리의서재 대표)

밀리 페어링 등 신규 서비스 4종 공개

“여러 서비스를 많이 선보였지만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독서가 변했습니다.”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가 인공지능(AI) 기반 독서 서비스를 앞세워 독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현진 밀리의서재대표(사진)는 5일 서울 마포구 밀리의서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독파밍 ▲밀리 페



어링 ▲필기 모드 ▲독서 기록 등 신규 서비스 4종을 공개하며 ‘독서 라이프 플랫폼’ 비전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춰 끊임이 없는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밀리의서재가 단순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넘어 독서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밀리의서재는 현재 AI 음성합성(TTS), AI 스마트 키워드, AI 페르소나 챗봇 등 AI 기술을 접목한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며 독서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를 이어가기 위해 차세대 AI 기반 서비스를 선보인다. 그중 AI 독파밍은 독서 중 AI 챗봇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책의 내용을 탐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책 뷰어 내 AI 독파밍 아이콘을 선택하면 AI 챗봇이 실행돼 책의 내용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 서비스는 기본적인 본문 내용 안내 기능부

터 시작해 심도 깊은 대화형 독서가 가능하도록 발전할 계획이다.

방은해 AI 서비스 본부장은 “AI 독서 메이트처럼 개인 맞춤형 독서 환경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국내 최초로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 밀리의서재는 현재 누적 가입자 820만명, 보유 콘텐츠 20만권으로 독서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박현진 대표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시장의 리더를 넘어 독서 시장 전반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콘텐츠와 사업 영역 확장 의지를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